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물로 드리는 열매는 ‘따밭’ 공동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7시부터 감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
- 대만 임자내교회 영성수련원 작업지원팀이 일을 마치고 31일(화) 귀국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선교회 이사회가 오후 1:30분 멧쟁이학교 휴게실에서 모입니다.
- 멧쟁이학교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10일(금)에 진행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종훈(생일) · 장미라 집사 가정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 감사 )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석지인 청년 ( 생일 감사 )  
 조윤계 청년 ( 생일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5 호

2023년 11월 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어려운 중에 빛난 욥의 고백

우리는 성서일기 본문으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독특하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욥 또한 그 색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초반부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종기가 났을 때에도,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을 볼 때 너무도 낯설고 불편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감사하다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나옵니다. 아무것도 변화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물며 안 좋은 일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어려움 중에 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평소의 감사고백은 아닙니다. 이 고백 바로 전에 그는 슬픔에 겨워 옷을 찢었고, 자신의 머리를 밀고, 머리를 땅에 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 욥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상상했을 때 가장 큰 상실은 자녀들을 잃었을 때의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에 자녀들이 일순간 죽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신분도 하나님이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만든 찬양곡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합니다!"-[주 이름 찬양 가사 중] 여기 가사에 "찾으신다"는 것은 seek가 아닌 take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욥은 분명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누리고 있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누려야 감사 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감사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친구 한명이 서울대를 다니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울증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 의도가 분명한 질문이었습니다. 비교를 통해 우리는 절대 감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방향성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평소에 눈여겨 났던 차를 보십니까?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백을 보십니까? 수많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나오는 부러운 것들에 눈이 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불만족과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욥은 땅 위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그의 정체성을 통해 감사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욥에게 배울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해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자존감이 있는지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이 그 통치자가 아버지로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할 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삶은 더욱 숨 막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간 있었던, 얻었던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 한주간 말씀

“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  
< 역대지하 32장 25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187, 170 / 379

기도 : 김영화 권사

성경 : 욥기 19장

제목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1. 내용: 빌닷에게 응답함. (What)

<문단구분>

1~5 괴로운 말을 하지말것을 요청하는 욥

6~24 하소연할 곳 없는 욥

25~29 하나님을 뵈기 원하는 욥

2. 의미: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욥. (Why)

1) 일반적 해결책이 소용없음을 토로함.[2~5, 21~24, 28~29]

2)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께서 돌보신다.[6, 25, 26, 29]

3. 적용: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들지 말자. (How)

1) 주제넘는 말이 아닌 위로하며 함께 하자.

2) 인격적이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 공주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

충청도와 아무 관련도 없던 우리 부부가 공주에 내려와 산 지 4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이곳에 정착하며 겪은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사는 마을에서의 삶을 떠올려보면 미소가 지어지죠.

어제는 아랫집 언니가 알타리김치를 같이 담자고 했습니다. 햇살  
따듯한 마당 한가운데 앉아 꽤 많은 양의 알타리무를 다듬고, 쪽파를  
다듬고, 씻고... 알타리무가 다 컸는데, 언니네 부부가 며칠 전 함께  
입원해서 손목, 어깨 수술을 받고 나온 뒤라 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 남편까지 나서서 함께 버무리는 일까지 마  
치고 우리는 겨우내 먹을 알타리김치를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정작  
농사지은 자신들의 몫보다 더 많이 보내주면서도 연신 고마움을 표하  
는 우리 이웃입니다(올봄에는 된장을 담가 향아리째 주셨네요).

우리 마을에 홈스쿨링을 하는 꼬마 둘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이  
들은 가족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행지 먹거리를 사 와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 옆집에 사는 노부부는 수제 완제품 음식을 다양하게 공급  
해 주십니다. 옆집 아이들은 등교하며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가  
고, 우리 집에 놀러와 나이든 우리와 놀아주다 가기도 합니다. 집 앞  
의 밭을 일구시는 노 씨 아저씨는 때마다 밭에서 막 수확한 먹거리를  
주십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는 이래저래 뭔가 놓여 있는 게 많았네  
요. '이렇게 넘치게 받고 살아도 되나?' 미안한 마음에 몸 둘 바 모르  
겠는 기분을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보살핌을 깊이 느낍니다. 알타리김치로부터 생  
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갇을 길 없는 사랑과 보살핌. 그런 일은 이후의  
삶에도 쪽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라"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비움사랑방 장지영 권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4 : 24  
2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베소서 1 : 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69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정태일 목사

역대기하 32 : 24 - 26  
590

설교자  
새작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04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윤순 / 봉헌위원 : 박영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단풍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 공동기도문

###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은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낮게 하셨습니다.<24>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습니다.<25>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자,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26>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마음.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과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왕하20:1-19>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딤후3:2>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모습,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이레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광릉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복자기 숲길을 한 바퀴 돌아 세조와 정희 왕후의 능을 보았습니다. 오르막길도 힘을 내어 걸었고 막내 아름이와 지음이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오뎅이처럼 벌떡 일어나 씩씩하게 다시 걸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숲길을 아홉 꾸러기들이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꾸러기학교에서 11월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생각하며 생명과 환경을 보듬는 달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신음하는 피조물을 꾸러기들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을 기다리는 피조물을 어떻게 도울까요?

숲 이야기, 투발루 이야기(바다에 잠겨가는 섬)를 읽어주니 "사실 이에요?"라고 꾸러기들이 묻습니다. 사실이라고 답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벌써 11월입니다. 올 해도 2달 남았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됩니다. 어린이학교는 도보여행을 한 주동안 다녀오니 가을 단풍이 학교 마당에 듬뿍 들었습니다. 식사 봉사오신 부모님께선 마당에 들은 가을 빛을 핸드폰에 담으십니다.

6학년은 어린이학교의 생활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졸업여행을 위해 조사하고 의논하며 계획을 세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졸업앨범 사진촬영도 했습니다. 원하는 세 가지의 컨셉을 설정하여 학교에서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 배움과 가르침

지난 금요일에는 한분 선생님과 한 어린이의 생일축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생일을 축하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도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어린이학교의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사랑방대화시간 때마다 손에 잡힐듯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던 주간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일산 킨텍스로 열린수업을 다녀왔습니다. '경기과학기술체험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행사에서 멋쟁이들은 모둠별로 나누어 현대과학기술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멋진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AI로봇이 만든 커피와 솜사탕을 들고 다니며, VR기기나 드론 같은 기기들을 실제로 조작했습니다. 멋쟁이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 사뭇 아쉬운 얼굴들을 보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쿠킹아트 동아리에서 만든 간식이 공동식사에 후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밀조밀 모습도 예쁜 것들이, 앙금과 팥의 맛도 훌륭해서 순식간에 동나고 말았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대만으로 봉사를 가셨던 최기찬 교감선생님께서 귀국하셨습니다. 귀한 경험을 품고 무사히 귀환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졸업생들과 이전 선생님을 초대하는 장인 멋쟁이 홈커밍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장에서 모여 함께 운동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쟁이들도 열심히 축구를 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학년들은 다른 멋쟁이들이 일산에 간 동안, 학교에 남아서 정태일 교장선생님과 매운 마라탕을 한껏 즐겼답니다. 이 좋은 기억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잘 생활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오솔길

꽤나 오랫동안 '그루터기'에서 살았다. 당연히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이 있었으나 한 걸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루터기 주차장을 지나 교회로 오는 오솔길이다.

처음 이 오솔길을 만났을 때 나는 분명히 감격했다. 비록 5분이면 지나는 짧은 길이지만 멋진 숲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거의 매일 나는 이 길을 지나다닌다. 캄캄한 밤에도 손전등을 켜고 더듬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이 숲길을 좋아한다.

올해도 길을 지나며 아기똥풀, 쑥, 쇠뜨기, 토끼풀, 쭈욱 자란 개망초를 만났고 조금 선선해져서는 고마리, 역귀 그리고 혼자 보기 아까운 물봉선의 고운 빛도 만났다. 그러다 어느 날 불쑥 떨어진 귀여운 밤톨을 만났고 며칠 전에는 금빛 잣나뭇잎 길을 만나다 오늘은 온통 갈색 떡갈나뭇잎 길을 만났다. 그렇다, 사철 내내 아름다운 길이다.

오솔길을 걸을 때면 내 자리와 역할을 되짚어보며 종종 감사기도를 드리게 된다. 아름다운 이 길을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길을 지나 도착할 사랑방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한다. 꾸러기들, 내 소중한 어린 벗을 주신 것, 보배 같은 동료들 주신 것에 감사한다. 길을 빠져나올 무렵에는 많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고단한 삶의 끊임없는 걱정거리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생각하는 나의 오솔길, 참 고맙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구나!

그루터기사랑방 전 향옥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93, 455

성경 : 고린도후서 8장 1-7절

말씀 : 구제에 동참하는 성도

중보기도 :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탈북민을 위한 기도>

북한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기간 동안 봉쇄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국민을 탈북민으로 규정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무관심 속에서 자유를 느껴본 노동자들은 귀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여명의 노동자들을 체포하여 북송하려고 합니다. 북송된 북한사람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대만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 1) 대만의 5%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 2) 사랑방공동체의 선교헌금이 대만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중하게 쓰이도록

### 3. 지역사회와 공동체 위해 <사랑방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공동체 운영위원회 모임을 통해 2024년을 잘 준비하도록
- 2) 11월 둘째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음 준비를 잘 하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두막공동체에서 공동체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인 '에제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월영사모님과 전경희 집사님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대만에 선교지원팀이 돌아왔습니다. 대만 모기로 인해 조금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모두 건강한 몸과 뿌듯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셨습니다.

낙엽이 너무 많아져서 시시때때로 주변을 정리해야할 때입니다. 낙엽을 모아 밭에 뿌리는 작업도 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